

# ‘오징어 게임’, 에미상 장벽 깼다

비영어 드라마 첫 작품상 후보  
이정재·오영수·박해수·정호연  
남녀 주연·조연상 후보에 올라  
황동혁 감독은 감독·각본상 후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스틸컷.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의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또 이 드라마의 주인공 '성기훈'으로 출연한 이정재는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되는 등 출연진 4명이 연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수상을 놓고 각축하게 됐다.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 텔레비전 예술·과학아카데미(ATAS)는 12일(현지시간) 제74회 에미상의 부문별 후보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12일 개최되며 NBC 방송을 통해 중계된다.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 부문 작품상 수상 후보로 지명되면서 이 드라마는 에미상 드라마 작품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최초의 비(非)영어 드라마가 됐다. 그동안에는 영어로 제작된 드라마에만 에미상 드라마 작품상 수상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 작품이 이 장벽을 처음으로 깬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또 작품상을 포함해 모두 14개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되면서 외국어 드라마로는 최다 부문 후보 지명 기록을 썼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다만 이는 가장 많은 25개 부문에 이름을 올린 '섹션'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상속에 둘러싼 미디어 재벌 가문 내부의 알력과 갈등을 그린 '섹션'은 2020년 이미 한 차례 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오징어 게임'은 올해 시상식에서 '섹션', '기묘한 이야기'(Stranger Things), '베터 콜 사울', '유포리아', '오자크', '세브란스: 단절', '엘로우 재킷' 등 다른 일곱 작품과 수상을 놓고 겨루게 된다.

이정재는 남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돼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 트먼, '섹션'의 브라이언 콕스, '베터 콜 사울'의 밥 오든커크, '세브란스: 단절'의 에덤 스킷, '섹션'의 제리미 스트롱 등 경쟁한 배우들과 경합하게 됐다.

이정재는 소속사를 통해 "훌륭한 배우 분들과 함께 이름을 올리게 돼 너무나도 영광이다"라며 "계속해 '오징어 게임'에 많은 사랑을 주시는 전 세계의 팬 분들, 그리고 함께 맘 흘렸던 '오징어 게임' 팀과 이 기쁨을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게임' 팀과 이 기쁨을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상우' 역을 맡은 박해수와, '오일남'을 연기한 오영수는 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 후보에 동시에 올라 수상을 놓고 서로 경쟁하게 됐고, '강새벽'을 연기한 정호연은 드라마 부문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됐다. 정호연 소속사는 "방송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인 '에미상'에 첫 연기 데뷔작이자, 한국 최초로 후보에 오르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또 드라마의 연출-각본을 맡은 황동혁 감독은 드라마 부문 감독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고, 강새벽에게 일부러 게임을 겨우고 죽음을 택하는 '지영' 역의 이유미는 여우단역상 후보로 지명됐다.

황동혁 감독은 넷플릭스를 통해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후보 지명을 계기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가 서로의 콘텐츠를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유례없는 흥행을 거두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17일 공개되고 이틀 만에 4위로 글로벌 순위권에 진입한 후 106일 동안 10위권을 지켰다.

또 공개 후 28일 동안 누적 시청 시간 16억5045만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이 중 약 95%가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징어 게임'은 한국을 포함해 94개국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이 됐다.

이처럼 글로벌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한 '오징어 게임'의 대중성은 에미상 경쟁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식 문화평론가는 "주요 영미권 내에서 인기를 끄는 '섹션'에 비해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인기가 있었다"며 "에미상 주요 부문을 싹쓸이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도 "시대를 읽고 새로운 고민을 던져 주면서 다양한 캐릭터로 사회를 신랄하게 고발했다는 점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따라올 작품이 없다"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예술대학협력 프로그램 선정 3팀 ACC재단, 17~23일 공연



전남대 금관 앙상블 'CNU BRASS'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17일부터 23일 까지 '2022 예술대학협력 공연 프로그램'에 선정된 3팀의 공연을 ACC 예술극장 무대에 올린다.

2022 예술대학협력 공연 프로그램은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공연 관련 예술대학 학생들이 공연 작품을 제작해 ACC무대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동신대, 전남대, 전주대 등 3개 팀이 선정돼 다윈, 음악, 연극 부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협력공연 무대는 여러 장르의 예술전공자들이 모인 동신대 뮤지컬 실용음악학과 '시간 속 갈매기' (17일 오후 5시)가 막을 연다. 학생들은 악기 연주와 보컬들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음악과 연극을 통해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어 19일 오후 7시에는 전남대 음악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금관 앙상블 'CNU BRASS' 팀이 '걸어서 금관 속으로'를 주제로 금관악기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팀인 전주대 공연방송연기학과는 문명의 이기로 인해 훼손되는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 '시정각실'을 선보인다. 공연은 23일 오후 2시와 오후 5시에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국청소년영화제 영상작품 접수 다음달 15~19일까지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과 한국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광주와 전북 익산에서 펼쳐지는 제24회 한국청소년영화제 영상작품을 접수한다.

오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며 공모 부문은 단편영화·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으로 런닝타임 30분 이내 작품이면 된다.

작품 주제는 자유이며, 2021년 3월 이후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이면 된다. 다만 타 영화제 수상작 및 TV에 방영된 작품은 제외된다.

응모 자격은 초·중·고등학교생(대안학교 포함)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예선 심사 결과는 9월 30일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본선 심사 결과는 24일 한국청소년영화제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대상 1편(상금 200만원)은 전국권역과 전라권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선정하며, 권역별로 최우수상 1편(각 100만원), 우수상 1편(각 50만원), 장려상 3편(각 20만원)을 시상한다. 문의 062-365-1318.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김희선 “블랙의 신부’ 넷플릭스 새 장르 될 것”

배우 김희선(사진)이 넷플릭스 시리즈 '블랙의 신부'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작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8부작으로 제작된 '블랙의 신부'는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렉스'를 배경으로 결혼을 신분 상승과 권력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김희선은 13일 서울시 중구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결혼정보회사가 많은 나라는 한국뿐이어서 이런 문화를 전 세계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다"며 "이번 작품을 계기로 넷플릭스에 새로운 장르가 탄생할 것 같다"고 기대를 밝혔다.

김희선은 복수를 위해 결혼정보회사 렉스에 들어간 서혜승 역을 맡았다. 남편을 죽임으로 내몰고 딸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진유희(정유진 분)에게 보복하고자 자발적으로 상류층과 얽힌다.

김희선은 "서혜승은 하나하나 복수를 꾸며가는 인물"이라며 "저라

면 빨리 사이드 같은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저와는 굉장히 다르다"고 했다.

넷플릭스와 함께 처음으로 작업한 소감에 대해서는 "시리즈물이라고 해서 작업 환경이 달라지진 않지만, 방영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점이 좋았다"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극 중 김희선의 복수 대상인 진유희 역은 배우 정유진이, 렉스 대표 최유선 역은 배우 차지연이 맡는다. 정유진은 진유희에 대해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렉스 최상위 등급 남자 '블랙'을 가지지 못한 인물"이라며 "블랙 등급과 이어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고 소개했다. 차지연은 "최유선은 인간 본연의 욕망을 잘 깨닫고 이용해 거대한 렉스라는 왕국을 건설했다"며 "사람을 파악하는 이성적인 면도 있지만, 감성적인 부분도 동시에 알고 있는 엄청난 전략가이자 지략가"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4시 넷플릭스 전편 공개.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